

광주 광덕고, '일본제품 불매' 선언

단체 신채호 후손이 설립한 학교 지난 5월엔 친일 교가 전격 교체

강제 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로 경제 회복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친일 교가를 앞장서 교체한 광주의 한 고등학교가 이번엔 일본제품 불매 운동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광주 광덕고는 17일 오후 1시30분 태극기 상설전시관 앞에서 학생회 주관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 결의문을 발표하고, 관련 퍼포먼스를 펼쳤다. 학

생 150여명이 참가했다.

고등학생들이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나선 것은 전국적으로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매운동은 긴급 학생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일본 아베 정부가 식민지배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와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이렇다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무자비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하자 "이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 단체행동에 나섰다.

학생들은 직접 제작한 피켓을 들고, 학생대표는 성명서를 낭독했고, 또 다른 학생들은 일본제품을 아크릴 박스에 담아버리는 불매운동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구호 제창도 이어졌다.

학생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 학용품보다 국산 구입, 일본 음식보다 한국 음식 먹기와 부모님에게 적극 알리기, 교내 태극기 상설전시관 수시 방문 등의 실천사항이 담겼다.

윤시우 학생회장은 "전국 최초 고

등학생 불매운동"이라며 "다른 지역 학생들도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교법인 만대학원 신홍수 이사장은 "매년 학교에서 개최되는 경술국치 행사와 순국선열의 날 행사 등을 통해 학생들이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광덕인이 돼 뿌듯하다"고 밝혔다.

만대학원 산하 광덕중·고는 지역 교육계 친일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세우기 운동을 위한 첫 사업으로, 지난 5월 친일작곡가가 작성한 교가를 새 교가로 교체했다. 광덕중·고는 단체 신채호 선생의 후손이 설립한 학교다.

조인호 기자

수영대회 선수단 수송버스·승용차 충돌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단 수송 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17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5시40분께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어등대교 주변에서 선수단 수송 버스와 승용차가 부딪혔다.

버스에는 5개국 25명의 선수가 타고 있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선수들은 영주체육관(아티스틱 수영 경기장)에서 우산등 선수촌으로 향하던 중이었고, 다른 버스로 옮겨 귀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버스와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접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선수단 수송 버스가 집중 배치되는 시간대 순찰차로 버스를 목격하지도 경호할 방침이다.

임형택 기자

문 열려있는 화물차서 금품 훔친 50대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17일 공사현장에 세워진 화물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박모(55)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박씨는 지난 5월7일 오전 10시55분께 광주 서구 한 신축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 현금 25만 원을 훔치는 등 지역에서 서민 같은 수법으로 총 3차례에 걸쳐 186만 원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인적이 드문 점심시간대를 노렸으며, 공사장에 세워진 화물차량 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점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한 주머니가 없이 전국 각지를 떠돌던 박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CCTV영상 등을 통해 박씨를 뒤쫓았으며 박씨가 다른 지역에서 또다른 절도 행각을 벌이다 구속, 수감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혐의를 추가하는 한편,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육군 일병, 발작 증상으로 치료 중 숨져

육군 8사단 소속 병사가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발작 증상으로 병원 이송 후 치료 중 숨졌다.

1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 양주 8사단 예하부대 소속 A일병이 이날 0시29분께 부대 행정반에서 원인불명의 발작증상을 일으켰다.

A일병은 119 구급대에 의해 양주시내 민간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오전 6시28분께 숨을 거뒀다.

A일병은 전날 오후 생활관에서 동료 부대원들과 자신이 갖고 있던 카페인 알약의 부작용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전해졌다.

A일병은 인터넷에서 운동능력 향상을 돕는 카페인 보조제를 구매해 전날 배를 통해 부대로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일병이 카페인 알약을 복용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군 수사당국은 A일병이 약물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 중이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카페인 알약은 운동능력 향상을 돕기 위한 운동보조제 용도로 출시됐다. 알약 1정당 약 200mg 카페인 함량이 있다. 인터넷이나 헬스용품점에서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자기관리와 운동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 장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보조제에 대한 부대 차원의 교육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 된다.

의정부서 버스 추돌사고로 18명 부상

17일 오후 1시께 경기 의정부시 자일동의 한 도로에서 포천 방향으로 가던 시내버스 2대가 추돌했다.

이날 사고는 앞서 가던 버스가 승객 하차를 위해 정류장을 지나 정차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버스가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정차 중인 버스 뒷부분을 추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로 양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5명 중 A(23)씨 등 18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가 B씨는 "승객이 벨을 늦게 눌러 급하게 비상등을 켜고 정차했는데 사고 당시 비가 많이 와서 뒤에 오던 차가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여름철 벌떼 조심"

7~9월에 83% 집중

벌집제거 출동 현황 발표

여름철인 7~9월에 벌떼의 출몰이 잦아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벌집 제거를 위해 119구급대가 출동한 건수는 14만7003건에 이른다.

월별로 보면 8월이 5만3978건(36.7%)으로 가장 많고, 7월(3만8730건·26.3%)과 9월(3만152건·20.5%)까지 합하면 전체 출동 건수의 83.5%가 7~9월에 몰려 있다.

2017년에도 전체 출동 건수 15만6588건 중 82.9%(13만1458건)가 7~9월에 집중됐었다. 7월 3만4748건, 8월 5만8924건, 9월 3만7786건이다.

말벌의 경우 여왕벌이 홀로 겨울을 보내다 봄이 되면 집을 짓고 알을 낳아 6~7월중 군집을 이룬다. 말벌의 세력은 더위가 수그러드는 10월 들어 잦아지는 경향을 띤다.

소방청 관계자는 "초봄에 여왕벌에 의해 벌집이 형성되나 규모가 작아 눈에 잘 띄지 않다가 기온이 상승하는 7월부터 벌집 내 일벌 개체 수가 늘면서 제거 신고도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며 "벌집 발견 시 합부로 건드리지 말고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벌집 제거 출동 건수는 1만4926건이며, 벌에 쏘여 병원으로 옮긴 환자 수는 836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4372건, 819명보다 각각 3.8%, 2.0% 늘었다.

뉴시스



소녀상위의 아베의 얼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1396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소녀상 너머로 아베를 비판하는 손피켓이 보이고 있다.

전남 교사 5명 중 한 명 "학교관리자 갑질 경험"

전교조 전남지부, 436명 설문 결과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전남지역 교사 5명 중 1명 꼴로 직장 내 갑질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교조 전남지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전남지역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 4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2.1%가 "학교관리자에 의한 갑질을 경험해 적 있다"고 답했다.

이는 장석웅 교육감이 취임 후 지난 1년 간 학교 현장에서 교장(감)과 원장(감)의 의한 갑질 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갑질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변하고 있다.

대표적인 갑질 사례로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 결정과 집행'을 꼽았다. 응답자의 41%가 동의했다. 이는 학교에서 민주적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학교의 중요한 결정에 관리자들의 독단적 결정으로 교사들이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어 '부당한 업무 지시(21%), 모욕적 언행이나 욕설, 폭언(11%), 인격 비하나 외모 비하(8%)'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모성보호 시간과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교사에 대한 눈치주기, 초과근무 사용 교사를 무능력

교사로 보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 회식자리에서 대리운전이나 다음날 자신의 차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 등 구시대적 갑질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전남지부 관계자는 "갑질로 고통받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할 것이며 현재 접수된 갑질사례부터 교사인정을 대변하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직장내 괴롭힘 금지조항 취지를 살려 현장의 갑질 문화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때"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